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자료문의 : 원전산업정책과 강경성 과장(2110-5481), 하동환 사무관(4882)	

모든 원자력발전소 비상디젤발전기 특별 점검키로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지난 3.15 실시한 고리원전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성능시험에서 고장으로 기동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

○ 한국수력원자력(주)(사장 김종신)에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 즉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달 안에 외부 전문가, 제작사 등 관계자 입회하에 특별 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.

□ 점검대상은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16개호기 32개 비상디젤발전기이며, 정기 예방보수중인 원자력발전소 비상발전기도 보수기간중에 별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 고리원전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등을 통해 미작동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로 하였다.

<참고> 원자력발전소 비상디젤발전기 특별 점검계획

○ 점검대상
-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: 고리3·4, 신고리1, 월성 1·2·3·4, 영광 2·3·4·5·6, 울진 2·3·5·6 등 16개호기 32개 비상발전기
- 정기예방보수중인 원전도 보수기간중 별도 점검 실시 (고리2, 영광1, 울진1·4 등 5개호기 10개 비상발전기)

○ 점검기간 : 3.16~18(계획수립), 3.19~3.30(점검)

○ 점검내용 : 정상가동 여부 등 성능시험

붙임 :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자료	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		
보도일시	즉시보도	배포일시	2012. 3. 16(금)
담당부서	안전정책과장 엄재식, 사무관 김기환(☎02-397-7284)		

안전위, 고리 1호기 철저히 현장 조사 중

- 보고 은폐 경위 및 기술적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대책 강구 예정 -

□ 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강창순, 이하 '안전위')는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 1호기 전원상실 사건에 대해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당일인 3월 12일 고리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시킨 후 13일부터 현장조사단을 고리 원전에 파견하여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.

○ 현장조사단은 안전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, 2월 9일 전원상실 사건에 대한 **보고 은폐** 경위와 고리 1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**전력공급계통**을 조사하고 있다.

□ **보고 은폐**건은 현재까지 조사결과, 당시 발전소장까지만 사건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, 현장 근무자, 발전소장, 본부장 및 한수원 본사 간부진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사건 당시 기동되지 않은 **비상디젤발전기**가 현재에도 기동되는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3월 15일 수행한 결과, 비상디젤발전기內 솔레노이드밸브(비상디젤발전기의 기동을 위해 공기를 공급하는 밸브)의 고장으로 기동되지 않았다.

○ 따라서 안전위는 앞으로 동 비상디젤발전기와 나머지 1대의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한 성능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.

□ 현재 **고리 1호기**는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이며 모든 외부전원이 연결되어 원자로의 냉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**안전하게 유지·관리**되고 있다.

□ 안전위는 금번 사건에 대해 **철저히 조사**하여 필요한 경우 **관계자**를 **엄중 문책**하는 한편,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**철저히** 확인하겠다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전 현장 종사자의 인적 오류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**안전문화** 강화방안과 **비상 디젤발전기** 등 전력계통의 **안전성** 강화강안, **원전 정지시**에도 안전상황을 **24시간 상시 감시**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